경기 좋아졌다는데… 서민경제는 '시름시름'

정부지표 호황 불구 개점휴업·폐업 상인들 속출

중산층→ 빈곤층 유입… 한국 20대 80의 사회로

"서민들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정부는 어떤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김민정(여·36)씨는 "티셔츠 한장도 못파는 날이 허다하다"며 "정부나 언론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때 단행했던 경기부양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서민경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영세업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개점 휴업상태인 가게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서민경기의 체감지표인 '시장경기'도 밑바닥에 머물고 있다.

◇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먹구름' =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만난 개인택시기사 김영민(61)씨는 "요즘엔 출퇴근 시간대 조차도 손님들이 없다"면서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들으면 부아가 치민다고 했다.

경기지표도 이같은 사정을 투영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올 2·4분기 15~29세 사이 청년 실업자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명)보다 6000명(57.6%)이 증가했다. 전남 청년층 실업자수는 올 2·4분기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5000명)보다 2000명(40.0%)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7.4%로 지난해 같은 분기(4.9%)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6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0.45%로 전달(0.44%)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지역(0.65%→0.74%)이 0.09%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지역(0.16%→0.15%)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7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4월 104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매출전망 BSI(113→105)를 비롯해 생산전망BSI(112→104), 신규수주전망BSI(105→96), 가동률전망BSI(112→104) 등이 모두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 중산층 붕괴20대 80의 사회 오나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 괴리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엔 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였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사회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양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중산층이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론 중산층 가구 비중이 줄면서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수준이 맨 가운데인 가구의 소득)의 50~150% 수준인 가구로 규정할 때 중산층의 비중은 96년 68.5%에서 2009년 56.7%로 쪼그라들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이 기간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약 3.9%포인트, 빈곤층으로 옮긴 가구는 약 7.9%포인트"라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빈곤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의 먹구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손질하는 수준의 재탕성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연합뉴스

자산 맡기면 경제흐름 맞게 주식·펀드 운용

은행 '랩 어카운트' 판매 채비

光銀 등 이르면 11월부터

은행권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랩 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된 데 이어 8월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11월부터 은행에서도 랩 어카운트 판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 등이 랩 어카운트 시장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고,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PB사업단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 조사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진행 중이다. 광주은행도 그룹사인 우리금융지주가 랩어카운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 ▲랩 어카운트= '포장하다(Wrap)'는 뜻과 계좌(account)를 합친 말로,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 고객 성향이나 경제 흐름에 맞게 주식·펀드·채권 등에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상품이다.

랩어카운드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들은 증권사와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신용카드, 펀드, 방카슈랑스, 골드뱅킹, 외화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전라 상거래 분쟁 중재센터

개소 1년만에 슬그머니 철수

8개월째 사무실 방치

상거래분쟁 조정을 위해 문을 연 대한상사중재원 광주전라중재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슬그머니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광주전라중재센터는 개인과 기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국경을 넘어선 상거래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자청하며 2008년 9월 광주상공회의소 3층에 개소했다.

본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와 학계,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70여 명이 중재인 인력 풀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모 건설사는 2008년 11월 한 자치단체 발주한 물류지원센터 공사를 수행하던 중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일자 중재센터를 찾아 조정을 요청했고 서울에 있는 상사중재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고 심리를 받을 수 있었다.

광주지역 모 제조업체도 정보통신기기 업체와 분쟁이 붙어 중재를 요청했으며, 러시아 거주 교민의 국제분쟁도 처리됐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은 센터 운영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광주에 파견된 인력을 개소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철수시켰고 사무실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

이후 전문위원 파견 일정이나 센터 폐지 여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가닥이 추려지지 않고 있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개소 이래 광주를 비롯해 전라지역에서 이뤄진 중재 개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알선(조정) 6건 등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효율적 인력 운용 차원에서 일단 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광주지역 한 상공인은 "국내, 외 기업분쟁 등 상거래 클레임이 갈수록 중시되는 마당에 반짝 운영 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방을 빼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며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의 인건비 등을 걱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어택시 활성화 나선 전남도 전남도가 무안~김포간을 운항하는 19인승 소형 항공기 에어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공무원들이 22일 오후 시·도지사 회의 및 국비 지원 활동을 위해 김포로 가는 에어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실업급여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도

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정 방식을 다양화·간소화하고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상반기 신설법인 3만1176개

작년보다 16% 늘어 13개월째 증가세

올해 상반기 경기회복과 소규모 창업 증가세에 힘입어 신설법인 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3만1176개로, 작년 같은 기간(2만6915개)에 비해 15.8% 증가했다.

월별 신설법인 수는 13개월째 작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5448개의 법인이 새로 세워졌다. 전월인 5월에 비하면 883개(189.3%) 많아졌고 지난해 6월보다는 55개(1.0%) 증가했다.

이처럼 새로 차려지는 회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경기 회복과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1인 기업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신설법인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재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은 1억원을 넘어서는 창업보다 4개월 연속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AS비용 때문에 비싸"

삼성 홍원표 부사장 밝혀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은 22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만약 미국에서 100원이고 한국에서는 110원으로 더 비싸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AS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사장은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스마트폰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한국에서의 AS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대당 AS 비용이 몇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고객은 많이 까다롭고, 불만사항이 생기면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에 진출한 한 외산폰이 잘 안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고 있다"면서 "종이 같은 휴대전화가 2015년 전에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